

나주, Y-식자재마트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기금 기탁

학생들의 꿈과 도전 응원하며 500만 원 전달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Y-식자재마트 나주점과 함께 인재육성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Y-식자재마트 나주점이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탰다.

(재)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지난 5일 나주시청에서 Y-식자재마트 나주점(대표 조법)과 인재육성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고 7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조법 Y-식자재마트 나주점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Y-마트는 1993년 설립된 호남 대

표 향토 유통기업으로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빛가람혁신도시에 문을 연 Y-식자재마트 나주점은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장학기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기탁된 기금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화순, '생활공예 창작교실'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역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인지기능 유지와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은 교통이 불편한 관내 11개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1개소당 총 8회씩 운영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예기술을 배우는 '생활공예 창작교실' 수강생을 오는 8월 1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진행되며, 화순군민 2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재료비를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교육은 매듭·한지·넙킨공예, 캘리그래피, 포크아트 등 다양한 분야를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기초 이론을 익힌 뒤 직접 작품을 제작하며 생활공예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남호경 기자

2026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 개최

전국 테니스 꿈나무들의 힘찬도전, 영광에서 펼쳐진다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및 한수원 사택 테니스장에서 '2026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꿈나무테니스재단과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주최·주관

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50여 명의 초등부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 단식 경기로 실력을 겨룬다.

경기는 남녀 병아리부, 새싹부, 10세부, 12세부 등 연령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선

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풍부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수단과 학부모, 대회 관계자 등이 영광을 방문함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의 테니스 꿈나무들이 영광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소중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다양한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대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장과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참가자 지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추진

3~6월 총 450건 적발... 우선정비 대상부터 단계적 복구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시행했다.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자,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한 장성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번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장성군이 하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방집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장성군은 우선정비 대상 시설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고, 하천 이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